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15장(하나님의 크신 사랑).....
※ 교 독 문77(요한복음3장)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63장(이 세상 험하고)
예배기도 1부 선우명환집사 2부 김애자권사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주여 작은 내 소망을”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 주옵소서. *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요한복음 3:3-5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거듭남의 신비 ”
기 도 최 세 열 목 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285장(주의 말씀 받은 그날)
봉 헌 (루디아회)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인 도 / 말은이	인 도 / 말은이	말 씀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찬 양 / 다 함 계	찬 양 / 다 함 계	말 씀 / 최세열목사	예레미야서 강해	
기 도 / 박상권권사	기 도 / 말은이	기 도 / 말은이	말 씀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본 문 / 마태복음20:28	본 문 / 왕상20:13-21	본 문 / 왕상20:13-21	말 씀 / 최세열목사	8월 9일까지 쉽니다.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 특별한 책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cts29 -제2과정 사역	제1강 사역의 기초	제1강 사역의 기초	주기도문 / 다갈이		
축 도 / 최세열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민영화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노재의집사
	한금위원	7월 김한순 노재의 한미경 정재영	다 음 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마르다A	다 음 주 찬양예배기도	1부	말 은 이
	헌신찬양	금주 루디아회	다 음 주	2부	천사라권사
					신혜영권사
					7 구역

거듭남의 신비 / 요한복음 3:3-5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혼의 혁명을 위한 여행 첫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특별한 대화 속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선생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갈망과 갈등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니고데모의 고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 혹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는 새로운 정신과 삶의 방식, 신분이나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거듭남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거듭남이고 전인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거듭남이 왜 신비한 일입니까?

1. 거듭남은 특별하고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거듭남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분명한 확신이 없어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속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본문2절에서처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표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거나 병든 자가 낫거나 하는 표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표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임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해 드리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12:39)

누구든지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최고의 사건으로 생각하여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사건은 특별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2.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신비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4절)라고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가 알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보

다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5-8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함과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좀 나아지고, 부족함을 채우고, 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24)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상의 말씀처럼 새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고, 새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엡4:22-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습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거듭남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이란 회개하고 받게 되는 물세례를,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의 임재, 곧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디도서3:5).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공휼에 있으며 씻음이라는 회개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혁명은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3.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거듭나야 할 사람은 유대 사회의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로 취급받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선생이며 철저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고,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겸손하게 살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꼭 거듭나야 합니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성령의 일을 알고(8절), 하늘의 일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기독교는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므로 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고전2:13,14).

예수님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며9s 풀리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기적중의 기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루디아회가 함께 했습니다.
2. 상반기를 결산하는 연합구역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24일)에 있습니다.
3.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4.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 한일장신대학에서 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을 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이종열 박현순 정해진 최임춘 함경숙 허 웅 김순님 오복실 권현석 박정일 박지영 김희숙 김기수 신혜영 김영란 안해숙 이미령 노대성 정재영 서영자 정숙자 최세열 조성순 정선례 심복례 최승만 이경훈 김상례
- 감사헌금 : 정해진 진진호 박태용 강항구 류종란 조예성 명다빈 명한빈 서영자 최세열 조성순 김옥길 여순애 신공님 김한순 이득만 (생일) 김귀례 김순님 (선교) 이영란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이종열 박현순 사라희 김옥길 여순애 허 웅 김순님 강동균 김현아 에스더 함경숙 조은미 안해숙 노순영
- 비전씨앗 : 배영인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 맥추감사 : 안해숙 김애자 조은미 남궁순 정순임 엄동순 박금순 양석임 방옥남 노재의 김영란 김금자 정선례 무명4명
- 비전씨앗 : 허준범 배영인 노장호 노현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귀례	3	15,000	10	교회	7	강은순	이영선					교회
2	정정희	김한순	김한순	4	14,000	50	교회	8	김순님	오복실	김장숙	8	40,000	40	교회
3	이춘호	함경숙	이현주	3	22,000	200	교회	9	김인순	이영란	김선자	3	11,000	80	교회
4	김기희	최경선	주중임	4	13,000	31	교회	10	장영분	박현순	노순영	4	17,000	100	교회
5	이문순	원혜경	교회	3	13,000		교회	계				36	159,000	616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4	14,000	195	교회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 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 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김익두 목사(1874-1950)는 젊은 시절 장안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16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후에 고향에 내려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금발의 서양 여자가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고 천당갑시다” 말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김익두가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확푼고 던졌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당신 전도지로 코푼면 코 썩습니다” 보통 사람같으면 주먹이 날라갔을 텐데 외국 사람이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여자 선교사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코가 썩는 것 같아서 밤 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여자 선교사인 스왈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결국 깡패 김익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익두는 자신이 더 이상 깡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기가 아는 자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놈 참 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리에 나가보니 김익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온화하고 미소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욕이 나왔는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믿겨지지 않았던 주막의 주모가 갑자기 김익두에게 구정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구정물을 닦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옛날의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거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거듭남의 기도 - 로버트 솔러

내가 아직 목사로서 설교 단에 선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부흥회를 시작했다. 부흥회 집회중 수요일 밤에 모인 사람들 중 15명이 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다.

다음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던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와 나를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는 통성기도하는 좌석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이나 울면서 기도했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마음먹기까지에는 일주일이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는 일주일이나 걸릴 필요가 없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29 2013.7.21.

7 월의 행사

1. 맥추감사절 : 7월 7일
3. 평신도 참여예배 - 7월 21일 - 루디아회
4. 해든솔 선교활동 - 7월 13일(토) 오전8시30분
5. 교육부서 여름행사안내

- * 어린이부 : 7월 19일(금)-21일(주일)
 - 장소 : 삼광교회, 원천교회
 - 담당 : 강은순전도사, 김선주집사
- * 청소년부 : 8월 1일(목)-3(토)
 - 장소 : 전주 한일장신대학교
 - 담당 : 이경훈전도사, 박세일집사

- * 청 년 부 : 8월 16일
- 6. 연합구역예배 및 여름방학
 - * 연합구역예배 - 7월 24일(수요일)
 - * 구역예배여름휴식:8월 10일까지
- 7. 금요기도회
 - *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쉽니다.
- 8. 전국남신도회 하계수련회
 - * 7월 16일 - 18일
 - * 장소 : 델피노리조트(속초)

* 여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